

| 한 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         |   | 4일~8일  |
|----------------|---------|---|--------|
| 코스피지수          | 2137.23 | ▲ | +37.03 |
| 코스닥지수          | 664.60  | ▲ | +2.26  |
| 환율 (원 · 달러)    | 1157.50 | ▼ | -9.50  |

지수는 8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16

비즈 프리즘 | 경기침체시대 특급 효자 아이템

## 가성비 최고...유통업계 '리퍼브'에 빠지다

단순 변심·전시 상품 등 손질 판매  
스마트 소비·실속형 구매자에 인기  
전문매장 확장...대기업도 진출 나서

'리퍼브'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리퍼브(Refurb·재공급품)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매장 전시 제품, 제조 과정에서 작은 하자가 발생한 상품, 이월 및 단종 상품 등을 다시 손질해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리퍼비쉬드'(Refurbished)의 줄임말이다.

리퍼브 제품은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 아니어서 중고품과는 다른 상품과 중고 사이의 중간 위치에 있는 상품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정상 상품과 비슷해 요즘같은 경기 불황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지는 실속형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소비로 여겨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리퍼브 상품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시



롯데아울렛 광고점의 리퍼브 매장 '프라이스홀릭'(왼쪽)과 리퍼브 전문 매장 올랜드아울렛의 인천점 외부 전경. 저렴한 가격에 품질은 정상 상품에 준하는 리퍼브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쇼핑·올랜드아울렛

장을 노린 유통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랜드아울렛은 오프라인 리퍼브 상품 전문점을 표방하는 업체로 매장을 빠르게 늘리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8월 말 오픈한 인천점을 비롯해 현재 전국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유명 브랜드 가전, 가구, 생활용품 등 약 100개 업체의 상품을 취급하며 할인율은 평균 40~50%, 최대 80~90%다.

유통 대기업들의 리퍼브 시장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아울렛 광명점은 12월 31일까지 리퍼브 상품을 취급하는 '리싱크' 매장을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운영한다. 광고점은 10월29일 리퍼브 매장 '프라이스홀릭'을 오픈했다. 대·소형가전, 주방용품, 유아용품, 골프용품 등을 정가가 대비 10~80% 할인해 판매한다.

이커머스도 나섰다.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과 옥션은 디지털 가전 상품 위주

로 리퍼브 상품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티몬은 매월 24일을 '리퍼데이'로 정하고 90% 이상의 할인가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임태춘 롯데백화점 식품리빙부문장은 "최근 리퍼브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성비 좋은 리퍼브 전문 매장을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3박 예약하면 1박을 무료 제공”  
한화리조트, 11월 이벤트 풍성

한화호텔앤드리조트(사진)가 11월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화리조트 온라인 고객 대상으로 2박 투숙 시 1박을 50% 할인, 3박 예약 시 1박을 무료 제공하는 주중(일~목) 특별상품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11일부터 24일까지 예약 가능하고 이용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다. 12월 16일부터 진행하는 2차 예약도 있다. 아쿠아플라넷63은 쌍둥이와 오후 6시 이후 입장하는 커플 고객에게 1+1 혜택을 제공한다. 아쿠아플라넷 일산과 여수는 13세 이하 쌍둥이 어린이, 제주는 20대와 동반 1인에게 1+1 혜택을 준비했다.

GKL, 대만여행박람회 'TITF' 참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게이밍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 유태열)은 대만 타이베이 국제무역센터에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19 TITF'(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TIT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여행박람회다. 올해 60개국에서 1700개 업체가 참가했다. GKL은 한류스타 이민호와 함께 세븐럭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체험 이벤트와 경품 증정 등을 통해 외래방문객 유치에 주력했다.

김재범 기자



한샘, '11월 놀라운 가격' 진행

한샘이 3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11월 놀라운 가격' 이벤트를 진행한다. 포시즌 매트리스(사진)와 침대 6종(유로501 코튼그레이, 유로602, 유로603, 유로604, 모아, 밀란301)을 함께 구매하면 최대 30만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천연 소가죽을 사용한 프리미엄 소파 유로 601은 18%, 식탁 바호 701 인칸토는 17% 할인 판매한다. 또 한샘디자인파크 내 패브릭관에서 커튼과 블라인드를 최대 20%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이대서울병원, '항노화 성형' 강좌 개최

이대서울병원(병원장 편옥범)은 14일 오후 3시부터 대강당에서 '항노화 성형, 안전하고 자연스럽게'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처진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상안검 성형술'과 같은 항노화 성형술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맞는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형외과 김지훈 교수는 강좌에서 다양한 항노화 성형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대서울병원 콜센터(1522-7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교육·퍼즐은 12월에 옮겨 실립니다.

### “마스크로 패션 완성” 브리더수트, 고급형 마스크 출시

패션 디자이너 협업...기능성 UP

패션 마스크 브랜드 브리더수트가 12월 김서룡 패션 디자이너와 협업한 고급형 마스크(사진)를 출시한다.

고급 기능성 원단, 인체공학적 설계, 김서룡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독창적인 패턴이 특징이다. 또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교체형 3중 필터, 휴대용 마스크 전용 향균 및 살균 스프레이 등 기능성에도 공을 들였다. 12월 출시에 앞서 티저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마케팅



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사전 예약 고객은 30% 할인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김승현 브리더수트 대표는 “마스크를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패션 아이템으로서 정착하고자 한다”며 “고객은 마스크 하나로 패션을 완성하는 효과를 경험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 서울 안구정 갤러리아름공간이 웨스트 5층에 '시크릿 기프트 마켓'을 선보였다. '산타의 크리스탈 마을'이라는 주제로 몽환적이고 반짝이는 영감을 주는 보석 콘셉트로 인테리어를 꾸몄다. 크리스마스 관련 기획 상품 및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한화 갤러리아

### 아시아나에 ‘통큰 베티’한 HDC...애경, 막판 뒤집기 할까

HDC, 매각 입찰 2조5000억원 써내  
금호산업 보유 구주 인수가격이 변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통 큰 베티기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진행된 매각 본입찰 접수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하 HDC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이하 애경 컨소시엄), KCGI-뱅크스트리트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 이중 KCGI-뱅크스트리트는 대기업 전략적 투자자(SI)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심사에서 제외되면서 인수전은 'HDC 대 애경'의 양강 대결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HDC 컨소시엄이 인수금액으로 2조5000억 원 내외를 적어

내 1조 원 대 후반을 적은 애경 컨소시엄보다 인수전에서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애경이 주말에 입찰가 열세를 만회할 새로운 재정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하면 상황을 역전하기는 어렵다.

HDC 컨소시엄이 현재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도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금호산업에 내야 하는 보유지분(구주) 인수가격이 변수로 남아 있다. 인수

전이 참가한 컨소시엄들이 구주 인수가격을 예상보다 낮게 적고 대신 신주 가격을 높게 제시했는데, 일각에서는 애경이 HD C보다 구주인수가격을 높게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몫인 구주가격을 높게 써낸 측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

금호산업은 이날 안으로 예정했던 우선 인수협상대상자를 선정을 앞당겨 다음 주까지 결정하고 올해안에 매각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시그니엘 서울, 가을 디저트 성지로 자리매김

‘르 구페...’ 애프터눈 티 세트 인기

‘무르익은 가을 정취, 프랑스식 애프터눈 티 세트와 즐겨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시그니엘서울이 가을철 디저트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시그니엘서울 79층의 더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시그니처 디저트 애프터눈 티 세트 ‘르 구페 시그니엘’(사진)이 인기를 끌며 전년 동기(1월~10월) 대비 매출이 20%나 상승했다. ‘르 구페 시그니엘’은 국내 유일



의 정통 프랑스식 애프터눈 티 세트로 홍차와 스콘이 중심이 된 영국식과 달리 부드러운 가토바투, 사과 타틴, 푸아그라 등으로 구성했다.

멜리샹 ‘페이스트리 살롱’ 역시 전년 대

비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아니 알레노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프랑스 출신 파티셰 막심 마니에즈가 만든 디저트가 특히 2030 여성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최근에는 가을 시즌을 겨냥해 새 디저트로 아몬드 비스킷과 커피 빈 크림, 초콜릿 가니슈로 만든 ‘오페라 케이크’와 청사와 콤포트가 들어간 사과 모양의 ‘사과 케이크’를 내놓았다.

김재범 기자